

결실의 달

만남과 나눔의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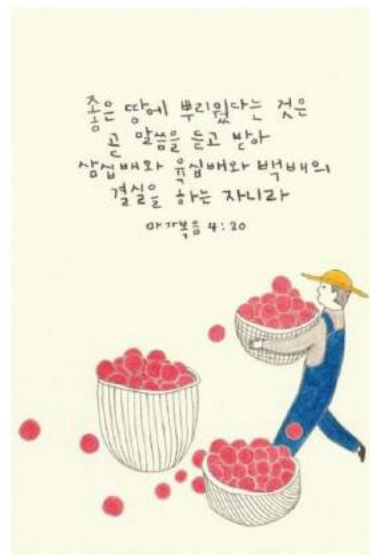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새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에스겔 37:9

새일은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October 3,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19번 - 시편 32편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최내권 집사 찬 송 / 40장 -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 1절 (통일찬송 43장)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324장 - 예수 나를 오라히네 (통일찬송 360장) 찬 송 / 341장 - 십자가를 내가 지고 (통일찬송 367장) 봉 헌 / 구은강 집사, 김훈테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320장 - 나의 죄를 정케하시 (통일찬송 350장) 성경말씀 / 요나 3:1-4 <b>마지못한 순종에도 불구하고</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예배소서 5:15-21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성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다.

-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10월 합심기도 점심 친교 후 팬데믹 이후 사역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한 달 동안 가집니다. (오후1:30)
- 사역훈련 주일 오후에 안수집사 교육이 12주간 계속 됩니다. (1:45 p.m. 컨퍼런스 룸)
- 임시 제직회 다음 주일(10/10)에 가집니다. (안건: 행정)
- 성경 읽기 매주 성경읽기 문제로 훈련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시다. (오전 10:15 / 인도: 장영현 전도사)
- 믿음의 뿌리 내리기 1) 기도운동 10월: 팬데믹 이후 사역재정비, 사역지 이전, youth ministry 2) 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시다.

10월의 사역 - 만남과 나눔 주간(3-9), Post Covid-19를 위한 기도모임(10월), 성장과 성숙 주간(10-16),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17-23), 선교 주간(24-30), 선교 주일(31)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9/26	10/3	10/10	10/17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최선윤집사	장영현전도사
주일헌금위원	9/26	10/3	10/10	10/17
	김훈태집사/구은강집사		박진성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9월		10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자선을 붙잡을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 요나 2:7-11**

요나에게 최선의 선택은 순종이었다. 그러나 그는 느웨로 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큰 폭풍 속에서 죽음의 기로에 선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졌다. 도움의 손길이 없는 무덤과 같은 곳,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 더 이상 물릴 곳 없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힌 요나. 그런데 이런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다. 간절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은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효력이 소용 없는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최선의 선택을 놓치고 인생의 바닥을 밟보는 그곳이 은혜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다시 시작하는 차선의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우리 인생의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

**마지못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 요나 3:1-4**

하나님은 요나를 순종으로 이끄셨다.

하지만, 요나는 온전한 순종이 아닌,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한다.

요나의 이런 순종은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졌다.

완전한 순종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온전한 순종을 드리자.

**마지못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 요나 3:1-4**

내포된 불순물에 따라 다이몬드의 가치가 결정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온전한 제사, 제물, 순종을 기뻐하신다. 요나는 그런 순수함을 결여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드렸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마지못한 순종조차 받으셨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 요나는 니스웨로 가서 사역의 기회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요나의 순종은 온전하지 않았다. 니스웨는 3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할 큰 도시였으나(3:3), 요나는 단 하루만 회개와 심판을 외쳤다(3:4). 그런데 놀랍게도 한참 부족한 그의 순종에, 니스웨는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다. 요나가 시작한 사역을 니스웨 시민들이 이어갔고, 마무리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하나님은 니스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할 준비를 하셨다. 말씀이 선포 이전에 이미 회개할 준비가 되었다. 요나의 마지못한 순종을 통해 니스웨의 12만 명을 살리셨다.

하지만, 불완전한 순종에 만족하면 안 된다. **첫째**, 하나님은 더 온전한 순종,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이 넘치는 순종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속죄의 제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미비한 순종도 받아 주신다고 해서 대충 순종해서는 안 된다.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 **둘째**, 순종은 능력으로 이어진다. 요나의 반 토막 충성이 니스웨의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는데, 온전한 순종은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겠는가? 역지로 십자가를 대신 했던 구레넷 사람 시몬의 그런 순종도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 순종은 그의 가정에 축복이 됐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아무리 작은 것에도 온전한 순종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된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행하신 순종이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자의 길을 죽음으로 순종하셨다. 온전한 순종의 표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마음과 시선을 제대로 집중해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며 -고전 9:26

마라톤 선수가 방향 없이 뛰면 어떻게 될까? 42.195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은 대단하지만, 결승선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빨리 달려도 헛수고가 된다.

42.195 킬로미터를 완주하듯 평생을 믿음 생활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상 받고 칭찬받는 것은 아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알고 집중하는게 아니라 향방 없이 달린다면 오히려 열심히 달린 만큼 거꾸로 다시 돌아와야 할 후회거리가 될 수 있다.

설렁설렁 사는 것 같은데도 능력 있고 열매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마치 사자와 같다. 사자가 평소에는 백수도 그런 상백수가 없다. 파리가 달라붙어도 눈도 뜨지 않고 귀찮은 표정으로 늘어져 있고,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사자다. 그런데 일단 목표물이 정해지면 달라진다. 수사자의 몸무게가 약 160-200 킬로그램 정도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수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며 시속 60-80 킬로미터로 달린다.

토끼나 쥐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뭔가 바쁘다. 나는 지금까지 토끼나 쥐가 한가한 것을 본 적이 없다. 반면 사자는 늘어져 있다가도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물만 쫓아가 잡는다. 승리하고 열매 맺는 인생, 존귀한 인생은 그런 집중의 능력에서 나온다.

우리 교회 심수용 집사님은 키도 체격도 그리 크지 않지만 권투 동양 챔피언을 지냈다. 그 분이 해준 얘기인데, 펀치를 몇 번 휘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승리의 요건은 정확한 타이밍 한 번에 집중하고 목표점을 정확하게 때리는 그 한 방에 있다고 한다.

축구도 그렇다. 한번은 우리 교인들과 다섯 킬터를 쉬지 않고 뛰었는데 그 전날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집중이 안 됐다. 아무리 공을 차도 골대를 비껴가고 페널티킥도 안 들어갔다. 그날 뛰기는 엄청 열심히 뛰어서 나오서는 역대 최대인 2 만 보를 뛰었지만 많이 뛰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골대에 집중해서 한 방만 제대로 차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 몸만 힘들고 지칠 뿐이었다.

“나 열심히 뛰었어”가 자랑이 아니다. 해결해야 할 때 해결하는 것이 능력이고, 넣어야 할 때 넣어야 승리한다. 이기기를 원한다면 허공을 치지 말고 향방 없이 뛰지 말고 목표를 정확히 잡고 방향성 있게 집중해야 한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하소연하는 것이다. 열심히 뛰는 것과 바쁜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바쁜 건지, 제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교회 열심히 다니며 분주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충성됨인 것은 아니다. 집중 없는 분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도 자신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바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해내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이 집중의 능력을 키워가라.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안호성, 『포커스 온: 집중하라』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